

집권 후반기, P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올인

(포스트 코로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과제

수출액 369억 달러로 24% 급감
수입액·무역수지 등도 줄어들어
올 코로나19에 韓 경제위기 몰려
“산업구조·통상환경 대대적 재편
포스트코로나에 국민들 동참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 기본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의 한계 극복 차원에서 나온 대안 정책이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준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상공인 반발을 불러왔고, 자영업의 위축세와 맞물리면서 빛이 바랬다.

게다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몰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현재 한국의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3% 급감했다. 수입도 15.9% 줄어든 37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역시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적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생긴 여파로 한국 경제 핵심축인 수출에 큰 타격이 생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3월부터 한 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자금 투입,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이 탄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체제’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

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체제 속에서 한국 경제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은 7일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장윤중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정책 세미나에서 ▲온라인 서비스업 부상 ▲제조업의 서비스 상품화(Servitization) 확대 ▲B2B(기업 간 거래) 제조업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新)산업 발전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진해야 할 산업구조 변화 방향으로 제안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中 열대거세미나방 확산 농식품부, 방역 총력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내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발생 속도가 빨라, 국내 주기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첫 발견된 이후 전국 31개 시군의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등 재배지(50.6ha)에서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로 발생지역 피해주율이 대부분 1% 내외였으나, 방제시기를 놓친 일부 지역에선 피해주율이 10~50%에 달한 곳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중국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열대거세미나방이 비래조건만 맞으면 편서풍 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 예찰, 국경 검역과 농가 적기방제 실시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검진 1300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건설근로자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X선 촬영 등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진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검진은 지역별로 전국 45곳의 검진기관에서 실시되며, 건설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일상 생활 배상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보장되며, 매 분기 말에 신청자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한용수 기자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 위해 코트라, 예산 63억 조기집행

임차·비품구입 등 15억 선결제 추진
입찰·수의계약 등 40억원으로 확대

KOTRA(코트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63억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코트라는 임차, 비품구입, 시설보수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 약 15억원을 선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찰·수의계약도 상반기 안에 체결하고 선금 지급을 확대해 약 4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 임직원 건강검진을 앞당겨 시행하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상반기에 소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선결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말에는 코트라 본사 근처에 있는 양재동 화훼단지에서 대형화분 36개를

구매해 로비와 정문 앞에 설치했다. 앞으로도 화분교체와 조경관리에 필요한 별도 계약을 체결해 분기별로 선결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사가 손을 모았다. 코트라는 매년 추석 때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난달에 미리 배부했다. 노동조합도 취지에 공감해 노조 창립기념품을 기존 백화점 상품권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해 증정했다.

코트라는 창립기념품과 직원 생일 기념품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이달 안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현시점에서 1차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이 내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코트라는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으로 임시 휴무와 이동 제한을 시행 중인 러시아에서 ‘한국식품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요’, ‘내 건강을 지키는 K-음료’ 등 집콕족을 대상으로 한 K-FOOD 온라인 홍보가 현지인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T

K-푸드, 러시아 집콕족 밥상 잡는다

농식품부·aT, SNS 홍보 등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으로 임시 휴무와 이동 제한을 시행 중인 러시아에서 ‘한국식품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요’, ‘내 건강을 지키는 K-음료’ 등 집콕족을 대상으로 한 K-FOOD 온라인 홍보가 현지인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감염증 확산세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내 한국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해 SNS 홍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T 등은 4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6주에 걸쳐 ‘간편조리 HMR 비축식품 및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을 주제로 릴레이 홍보를 진행 중이다. 총 10회차로

제작한 이번 영상물은 primenews 등 극동러시아지역의 유명 SNS채널을 통하여 약 백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특히, ‘한 달 동안 마트를 가지 못한다면?’, ‘삼시 세끼 K-Food 즐기기’ 등 장기간 집콕생활에 힘들고 지친 현지 소비자들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까지 해시태그 이벤트나 홈쿠킹 후기공유 등에 적극 참여한 80여명의 소비자들에게는 푸짐한 ‘K-FOOD 럭키박스’도 증정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aT는 지난해 신북방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연해주의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지사를 신설하여 활발한 한국 농식품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1분기 러시아, 몽골 등 신북방 국가의 수출 실적은 69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상승했다.

/한용수 기자 hys@

산림청 임산물 판로개척, 비대면 수출 추진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임산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에 나선다. 향후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 등 나라별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임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임산물 비대면(Untact)수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수출에 익숙치 않은 수출업체를 대신해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상품 등록과 판매, 고객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중진공, 일자리창출 공로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대상’을 받았다.

중진공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네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강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확대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4100억원을 투자해 약 17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